

연령에 따른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의 중요도 비교

위 경 선 · 윤 가 현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요약)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5요인으로 분류된 용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들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용서과정에서의 요인과 연령에 따른 특성을 살펴본 것이었다. 연구대상자는 30-84세의 남성 419명과 여성 433명이었으며, 그들에게 만약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을 용서를 하게 될 경우, 각 요인들이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에 어느 정도 중요할 것인지를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의 5요인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5요인들 중에서 f2(대조로 인한 위로)와 f3(가해자의 변화)은 모든 연령대에서 같은 중요도를 보이지만, f1(사회경제적 지위상승), f4(건강악화 및 죽음), 및 f5(치유를 위한 노력)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중요도가 더 높아졌다. 30대나 40대에서는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에 f2와 f3이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50대 이상에서는 f2와 f3뿐만 아니라 f1, f4, 및 f5도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에 중요해짐을 알 수 있었다.

[Key words: 노년기의 용서, 상처 치유, 용서과정, 용서노인, 인지적 변화]

이 논문은 첫 번째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윤가현 교수 앞으로 하시길 바라며, 교신저자의 e-mail 주소는 ghyoun@jnu.ac.kr ghyoun@chonnam.ac.kr이다.

서론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부당하게 취급을 받은 경험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분노나 불안, 우울 및 복수의 충동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또 사람들은 다양한 대처방식을 동원하여 마음의 상처로 인한 부적 정서를 경감시키고, 손상된 대인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만, 갈등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그 상처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처럼 대인관계에서 겪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용서(forgiveness)를 제안하고 있다(Cotroneo, 1982; Enright 등, 1996; McCullough, Worthington, & Rachal, 1997; Smedes, 1984). 용서는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받고나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기치유와 자기회복의 문제해결 방법이자 원한의 감정을 극복하게 해주는 매우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오영희, 1995; Enright & Fitzgibbons, 2000; Hope, 1987; Ritzman, 1987).

Vailant(2002)는 성인발달에 관한 중단연구를 통하여 용서가 성공적인 노화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였으며, 용서를 통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극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듯이 용서가 성인기 이후 삶의 질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박종효, 2012). 용서를 하는 것은 역시 개인의 우울이나 불안, 분노 감정을 없애주거나, 삶에 대한 희망이나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개인의 정신건강이나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반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다양한 정신건강상의 문제, 우울, 불안, 분노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구세준 · 배성만 · 현명호, 2011; 김광수, 2002, 2004; 박종효, 2003, 2006; 오영희, 2004, 2007; Baskin & Enright, 2004; Bono, McCullough, & Root, 2008; Enright, 2001, 2012; McCullough, 2000; Toussaint & Webb, 2005; Worthington, 2005). 이러한 용서의 긍정적인 효과는 성인기 초구나 중기뿐만 아니라 노인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Lawler & Piferi, 2006).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의 중요도

여러 경험적인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과거에 깊은 상처를 경험했던 많은 노인들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상태로 오랫동안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위경선·윤가현, 2011a; 장우심, 2010; Hebl & Enright, 1993). 이처럼 과거에 경험했던 깊은 정서적 상처를 노년기에 이를 때까지 해결하지 못할 경우 노인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상실하고,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억누르면서 힘들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등 잘 적응하지 못하고 여생을 보내게 된다(Erikson, 1959, 1978). 따라서 과거의 고통스런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노인들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 전문가들의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다.

용서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되는 일련의 과정이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용서과정은 과거의 상처 경험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는 인지적 재구조화(cognitive restructuring)이며, 용서의 목적은 피해자 스스로가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원한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내면세계를 편안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Walker & Gorsuch, 2004). 용서의 과정을 설명하는 수많은 모형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Enright 등이 제시한 대인용서(interpersonal forgiveness)¹⁾에 관한 모형이다(Enright 등, 1991, 1996). 이외에도 Worthington(1998), Flanigan(1992), Hargrave(1994) 등의 용서과정 모형이 용서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서과정 모형들은 용서 주체자의 발달단계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에 응용되어 왔다(김광수, 2004; Al-Mabuk, Enright, & Cardis, 1995; Freedman & Enright, 1996; Hebl & Enright, 1993).

그러나 이 Enright 등의 용서과정 모형에 근거한 용서 프로그램을 다른 연령층이 아닌 노인들을 상대로 적용할 때 노년기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은 약점들이 노출된다. 첫째, 기존의 용서모형의 대상은 상처를 입은 시기가 대부분 5년을 넘지 못했지만(Hebl &

1) 용서 대상이 타인일 경우 대인용서(interpersonal forgiveness) 그리고 자신일 경우 자기용서(self-forgiveness)라고 부른다(Thompson & Snyder, 2003). 본고의 논지는 대인관계에서의 정서적 상처를 다루므로 대인용서에 초점이 맞추어 기술되었다.

Enright, 1993), 노인들이 상처를 입은 시기는 대부분 최소 5년에서 최장 50년 정도가 지난 경우들이었다는 점이다(위경선 · 윤가현, 2011a, 2011c). 둘째, 노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누적된 다양한 경험들 및 노화로 인한 신체 · 심리적 변화가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나 용서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셋째, Enright 등의 모형에서 용서의 이유는 상처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한 것이었다. 그에 비해 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특히 생의 종말에 가까운 노인들이 용서를 하는 이유는 신체적 노화와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또 죽음을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위경선 · 윤가현, 2012; Prince-Paul & Exline, 2010; Wee & Youn, 2012). 넷째, 한국의 노인들의 경우, 자녀의 성공이 자긍심 향상, 성공적인 노화뿐만 아니라 용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위경선 · 윤가현, 2011b).

위경선 · 윤가현(2011c)은 노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용서과정의 요인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들은 용서 경험을 회고적 기법으로 탐색하면서 용서과정에서 인지적 변화를 유발시켰던 요인을 모두 여섯 가지로 정리했는데, 이들은 ① 타인과 상호작용이나 직 · 간접적 관찰, ② 자신과 타인의 건강악화 및 죽음, ③ 자연재해로 인한 죽음 관찰, ④ 종교를 통한 삶의 회고와 치유, ⑤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그리고 ⑥ 교육 등의 간접적 개입이었다. 또 그들은 그 여섯 가지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들의 내용을 모두 17개의 변인으로 정리했는데, 이 변인들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1>에 소개되어 있다. 용서과정에서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지적 변화 유발이 가능한 경우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경우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인지적 변화를 유발시켰다(위경선 · 윤가현, 2011c).

국내외에서 시도된 용서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며, 용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 종교, 공감(empathy), 의도(intent), 심각성(severity), 사회적 친밀감(social proximity), 사과(apology), 타인의 태도(attitudes of others) 등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김기범 · 임효진, 2006; Gauche & Mullet, 2005; Girard & Mullet, 1997; Girard, Mullet,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의 중요도

<표 1>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의 구분

요 인	17가지 인지적 변화 유발 변인
f1 사회경제적 지위상승	1.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상승 2. 자신이나 배우자 사회경제적 지위상승 3. 가해자와 비슷한 사람 관찰
f2 대조로 인한 위로	4. 자신과 같은 경험 가진 사람 관찰 5. 더 힘든 일 경험 6. 주변 사람들의 위로
f3 가해자의 변화	7. 가해자 잘못 인정 및 사과 8. 가해자와 지속적 상호작용 9. 가해자 사회경제적 상황 악화
f4 건강악화 및 죽음	10. 자신의 건강악화 11. 가해자의 건강악화 12. 가까운 사람 건강악화 13.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일반인 죽음의 관찰
f5 치유를 위한 노력	14. 정신적 평안 추구 15. 종교를 통한 삶의 회고 및 치유 16. 가해자 용서에 따른 보상의 믿음 (자녀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복) 17. 교육 등 간접적 개입

& Callahan, 2002; McCullough, Sandage 등, 1998; McCullough 등, 1997; Subkoviak, Enright 등, 1995). Tung(2009)은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을 가해자 요인(가해자의 사과, 의도 및 동기, 심각성), 가해자와의 관계적 요인(가해자와의 친밀도, 가해자와의 관계의 질 및 기간), 개인적 요인(연령, 종교, 공감 등)으로 삼분하였다. 또 박종효(2012)는 개인적 특성(성격, 공감), 대인관계 특성(관계의 질 및 신뢰감, 가해자의 사과나 보상), 상황적 특성(가해의 심각성, 지속기

간)으로 삼분하였다.

종합해보면, 기존의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개인적 요인, 가해자 요인, 대인관계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노인의 용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그 세 가지 요인에다가 건강악화 및 죽음 요인 그리고 자녀 요인이 추가될 수 있었다. 그래서 노년기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를 유발하는 상기의 17가지 변인들은 필자들의 연구를 포함하여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힌 여러 연구들을 기초로 <표 1>의 5가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위경선 · 윤가현, 2011a, 2011b, 2011c, 2012; Darby & Schlenker, 1982; Enright, Gassin, & Wu, 1992; Girard & Mullet, 1997; Girard 등, 2002; McCullough 등, 1997; Takaku, Weiner, & Ohbuchi, 2001; Tung, 2009; Wade & Worthington, 2003; Wee & Youn, 2012; Worthington & Wade, 1999).

여기에서 요인 1(사회경제적 지위상승)은 자녀나 자신의 성공을 통한 자긍심 향상과 관련된 변인들인 ①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상승과 ② 자신이나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상승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상승은 자긍심(self-esteem)을 향상시키며(유양경 · 고성희 · 김귀분 · 정승희, 2004; Zhang & Postiglione, 2001) 또 자긍심의 상승은 용서경향성을 높여주었는데(Al-Mabuk 등, 1995; Hebl & Enright, 1993),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도 자녀의 성공은 노부모의 자긍심 유지 및 향상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김미혜 · 신경림, 2005; 유양경 등, 2004).

요인 2(대조로 인한 위로)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타인을 관찰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처를 되돌아보고 위로받는 것과 관련된 변인들인 ① 가해자와 비슷한 사람 관찰, ② 자신과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 관찰, ③ 더 힘든 일 경험, ④ 주변 사람들의 위로가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대인관계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공감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의지가 약화되고 용서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정서가 더 증가하여 용서의 경향성이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Fincham, Paleari, & Regalia, 2002; McCullough 등, 1997; Wade & Worthington, 2003; Worthington, 2006). 또한 용서 경향은 상처의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의 중요도

심각성의 정도를 낮게 지각할수록 더 높아지는 편이었다(McCullough & Worthington, 1995).

요인 3(가해자의 변화)은 가해자의 사과와 가해자와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변인들인 ① 가해자 잘못 인정 및 사과, ② 가해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③ 가해자의 사회경제적 상황 악화가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가해자의 사과는 용서에 가장 결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밝혀졌는데, 가해자의 사과가 진심이라고 지각될 경우에 용서가 가장 쉽게 이루어지는 편이었다(Darby & Schlenker, 1982; Girard & Mullet, 1997; McCullough 등, 1997; Takaku 등, 2001). 또 가해자와의 관계가 가까워지거나 가해자가 자신에게 헌신적이라고 지각하면서 그 관계로부터 만족감을 얻을 경우에는 용서 경향성이 높아졌다(Nelson, 1993; Rackley, 1993; Roloff & Janiszewski, 1989; Woodman, 1991).

요인 4(건강악화 및 죽음)는 노화를 통해 건강이 악화되고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 변인들인 ① 자신의 건강악화, ② 가해자의 건강악화, ③ 가까운 사람의 건강악화, ④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일반인들의 죽음 관찰이 있다. 건강악화와 용서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에 의하면,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건강이 좋았을 때보다 심각한 질병으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그리고 가해자의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가해자를 더 쉽게 용서했으며, 또 용서를 하지 못한 상태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은 죽기 전이라도 용서를 하고 싶어 했다(Lawler-Row & Piferi, 2006; Prince-Paul & Exline, 2010).

요인 5(치유를 위한 노력)는 개인적인 요인으로 종교 및 교육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것과 관련된 변인들인 ① 정신적 평안 추구, ② 종교를 통한 삶의 회고 및 치유, ③ 가해자 용서에 따른 보상의 믿음, ④ 교육 등 간접적 개입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종교가 있거나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용서를 더 쉽게 하는 편이며, 용서경향성은 특히 고령일수록 더 큰 편이었다(Gorsuch & Hao, 1993; McCullough & Worthington, 1999; Mullet, Barros, Veronica Usai, Neto, & Shafighi, 2003). 또한 대부분의 용서와 관련된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은 용서경향성을 높여주는 효

과를 보였다(장우심, 2010; Al-Mabuk 등, 1995; Enright & Fitzgibbons, 2000; Freedman & Enright, 1996; Hebl & Enright, 1993; Worthington, 2006).

용서와 연령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에 의하면, 용서 경향성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Subkoviak 등(1995)은 연령의 증가가 용서의 정서, 인지, 행동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으며, 청소년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 용서 경향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높아지는 편이었다(Girard & Mullet, 1997). 또한 연령은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종교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Mullet 등, 2003). 또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른 사람들하고의 친화성(agreeableness)은 증가했으며, 상처를 받는 빈도가 낮아졌으며, 그리고 상처를 받았을 때 심각성의 지각도 감소하는 편이었다(Steiner, Alameda, & McCullough, 2011, 2012). 그래서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연령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종교와 친화성 및 상처의 빈도와 심각성 요인들과 연령의 관련성 이외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의 영향력을 30대, 40대, 50대, 및 60대 이상의 연령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용서의 요인과 연령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곧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5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위경선 · 윤가현, 2011c, 2012; Darby & Schlenker, 1982; Enright 등, 1992; Girard & Mullet, 1997; Girard 등, 2002; McCullough 등, 1997; Takaku 등, 2001; Tung, 2009; Wade & Worthington, 2003), 이러한 5요인 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요인분석으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목적은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들의 연령에 따른 특성을 비교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각 연령대의 용서에 중요한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른 검증은 용서의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30대에서 80대까지의 연령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약에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의 중요도

가 나중에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들이 용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를 물으면서 그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연구가설은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들이 용서과정에 미치는 중요도는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 그리고 노년기 특성과 관련된 요인인 사회경제적 지위상승 요인(f1)과 건강악화 및 죽음 요인(f3) 및 치유를 위한 노력 요인(f5)이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에 미치는 중요도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더 높아진다는 것이었다.

연구방법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자들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30세부터 84세까지의 남녀 852명(연령: $M=51.2$ 세, $SD=14.2$)이었다. 그들 중에서 남성은 419명(연령: $M=51.3$ 세, $SD=13.9$) 그리고 여성은 433명(연령: $M=51.2$ 세, $SD=14.4$)이었다. 조사 당시의 연령대는 남성이 30대 113명, 40대 100명, 50대 104명, 및 60대 이상 102명이었으며, 여성이 30대 112명, 40대 112명, 50대 101명, 그리고 60대 이상 108명이었다.

그들의 학력은 초졸 55명(6.4%), 중졸 67명(7.9%), 고졸 166명(19.5%), 대졸 451명(52.9%), 대학원졸 113명(13.3%)이었으며, 모든 조사대상자가 글을 읽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다. 그들 중에서 682명(80.0%, 남자 335명, 여자 347명)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61명(7.2%, 남자 39명, 여자 22명)은 이혼이나 사별로 그리고 109명(12.8%, 남자 45명, 여자 64명)은 미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전체의 56.4%($n=481$)이었고, 직업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64.2%($n=547$)이었다.

조사도구

본 조사에서는 용서과정에서의 인지적 변화 유발 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위경선·윤가현(2011c)의 연구에서 도출한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이었던 17가지 변인들을 각각 하나의 진술 문장으로 바꾸어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것이었다. 예를 들면,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이라는 변인은 ‘내 자녀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상승하거나(예: 취업, 승진, 원하는 대학 진학 등) 경제적인 형편이 더 좋아졌다.’라는 문항으로 그리고 가해자와 비슷한 사람 관찰이라는 변인은 ‘가해자만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살면서 가해자와 비슷한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문항으로 만들어졌다. 척도 내용에 대한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는 필자들을 포함하여 4인의 전문가(심리학 박사 및 국문학 박사)와 함께 구했다. 설문지 질문들에 대한 응답형태는 Likert식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0)”로부터 “매우 그렇다(=4)”까지]이었으며, 응답방법은 자기보고식이었다. 본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 α 는 .84($n=852$)이었으며, 요인별 내적일치도 계수는 요인의 순서에 따라 각각 .72, .69, .63, .75, 및 .71이었다.

조사절차

조사대상자의 모집은 해당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그 기관이나 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3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대인관계용서와 관련된 설문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구두로 묻고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2-15명의 소집단 또는 일대일로 각 기관의 회의실이나 강의실 등에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설문지 조사 참여 동의 여부를 물었다. 참여에 동의한 조사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나누어주고서 설문지 작성요령을 설명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가상으로 용서를 할 경우 인지적 변화와 관련된 변인들이 용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정도와 자신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요인(나이, 성별, 학력, 종교, 직업 등)을 설문지에 직접 기록하였다. 시력이 좋지 않아 설문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의 중요도

지를 읽기가 어려운 노인들의 경우에는 조사자가 설문지를 읽어주면서 답변하게 하였다. 자료 수집에 소요된 시간은 조사 목적이나 응답 요령의 설명 등을 포함하여 25분을 초과하지 않았다. 수거된 설문지의 수는 895부였으며, 그 중 50세 이상 연령층으로부터 설문지 응답에서 일부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던 43부를 제외한 85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분석방법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들을 측정하는 척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5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으며, 가설검증을 위해 각 요인들이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에 미치는 중요도를 연령대, 성별²⁾에 따른 3-way ANOVA를 실시했다. 즉,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 연령대(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 성별(남, 여)의 혼합설계였다. 연령대와 성별은 피험자간 변인이며,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은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에 미치는 중요도 점수가 종속변인으로 측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 척도의 타당화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 척도의 17개 문항에 대한 5요인 모형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의 표본($n=852$) 자료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요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적합도 지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홍

2) 용서와 성별간의 관련성은 상충되는 결과를 보였다. Enright와 Zell(1989)은 용서에는 성차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Bringle(1996)은 남자가 용서를 더 잘하며, Mullet, Houdbine, Laumonier와 Girard (1998)는 여성들이 용서를 더 잘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가설과는 무관하게 성별을 분석에 추가하여 살펴보았다.

세희(2000)에 의하면, TLI와 CFI가 .90 이상이거나 RESEA가 <.05이면 좋은 적합도,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면 보통 적합도, >.10이면 나쁜 적합도로 평가한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항의 경로계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의 연령에 따른 특성

각 요인들이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에 미치는 중요도에 대해서 평가한 통계치(M, SD)를 연령대와 요인별로 정리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요인들이 용서과정에 인지적 변화 유발에 미치는 중요도가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피해자내 변인)과 연령대(피해자간 변인) 및 성별(피해자간 변인)에 대한 3-way ANOVA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에 미치는 중요도는 인지적 변화 요인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F=78.87, p<.001$), 연령대($F=24.10, p<.001$) 및 성별($F=19.82, p<.001$)에 따라서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요인×연령대 상호작용($F=15.08, p<.001$)도 역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요인×성별, 연령대×성별, 요인×연령대×성별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이에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과 연령대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요인별로 연령대에 대한 1-way ANOVA를 실시했으며, 또한 각 연령대별(30대, 40대, 50대, 및 60대 이상)로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에 대한 1-way ANOVA를 실시했다. 그 내용은 <표 5> 및 <그림 1>과 같다. 표의 내용을 먼저 요인에 따라서 기술한 후 연령대에 따른 기술을 했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	p	TLI	CFI	RMSEA
5요인 모형	623.437	.000	.84	.87	.07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의 중요도

<표 3>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의 경로계수

변수간 경로	b	β	S.E.	t
f1 사회경제적 지위상승 → v1	1.00	.86		
v2	.77	.65	.07	10.95***
f2 대조로 인한 위로 → v3	1.00	.66		
v4	1.05	.76	.06	15.40***
v5	.84	.59	.06	13.54***
v6	.69	.44	.06	10.72***
f3 가해자의 변화 → v7	1.00	.70		
v8	.90	.73	.07	12.62***
v9	.60	.42	.06	9.92***
f4 건강악화 및 죽음 → v10	1.00	.70		
v11	1.04	.71	.06	17.08***
v12	1.07	.74	.06	17.51***
v13	.73	.50	.05	12.60***
f5 치유를 위한 노력 → v14	1.00	.55		
v15	1.39	.59	.11	12.47***
v16	1.50	.68	.11	13.52***
v17	1.23	.65	.09	13.14***

v1.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상승
v2. 자신/배우자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v3. 가해자와 비슷한 사람 관찰
v4. 자신과 같은 경험 가진 사람 관찰
v5. 더 힘든 일 경험
v6. 주변 사람들의 위로
v7. 가해자 잘못 인정 및 사과
v8. 가해자와 지속적 상호작용
v9. 가해자 사회경제적 상황 악화

v10. 자신의 건강악화
v11. 가해자의 건강악화
v12. 가까운 사람 건강악화
v13. 자연재해/사고 등으로 인한 일반인 죽음의 관찰
v14. 정신적 평안 추구
v15. 종교를 통한 삶의 회고 및 치유
v16. 가해자 용서에 따른 보상의 믿음
v17. 교육 등 간접적 개입

*** $p < .001$

<표 4> 성별 및 연령대별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의 통계치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				
		f1	f2	f3	f4	f5
		<i>M</i>	<i>M</i>	<i>M</i>	<i>M</i>	<i>M</i>
		(<i>SD</i>)	(<i>SD</i>)	(<i>SD</i>)	(<i>SD</i>)	(<i>SD</i>)
30대	남	1.80 (1.10)	2.51 (.70)	2.19 (.89)	1.46 (.89)	1.95 (.88)
	여	2.04 (1.20)	2.56 (.72)	2.20 (.97)	1.43 (.90)	2.14 (.82)
40대	남	2.04 (1.20)	2.39 (.78)	2.29 (.91)	1.76 (.93)	2.28 (.90)
	여	2.23 (1.77)	2.61 (.75)	2.30 (.93)	1.82 (.92)	2.56 (.74)
50대	남	2.24 (1.01)	2.33 (.64)	2.18 (.91)	1.97 (.79)	2.33 (.70)
	여	2.35 (.99)	2.63 (.72)	2.36 (.93)	2.07 (.74)	2.66 (.82)
60대 이상	남	2.39 (.91)	2.41 (.77)	2.10 (.96)	2.37 (.57)	2.57 (.83)
	여	2.69 (.85)	2.65 (.64)	2.40 (.84)	2.61 (.67)	2.87 (.78)

주. 각 항의 수치는 요인의 평균점수이며, 점수범위는 0-4점임.

f1: 사회경제적 지위상승

f2: 대조로 인한 위로

f3: 가해자의 변화

f4: 건강악화 및 죽음

f5: 치유를 위한 노력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의 중요도

<표 5> 각 요인별 연령대에 대한 검증치
및 각 연령대별 요인에 대한 검증치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					<i>F₂</i>
	<i>f1</i>	<i>f2</i>	<i>f3</i>	<i>f4</i>	<i>f5</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30대	1.92 (1.15)	2.54 (.71)	2.20 (.93)	1.45 (.90)	2.04 (.85)	41.79***
40대	2.14 (1.19)	2.51 (.77)	2.29 (.92)	1.79 (.92)	2.42 (.83)	19.00***
50대	2.30 (1.00)	2.48 (.69)	2.27 (.92)	2.02 (.77)	2.50 (.78)	10.59***
60대 이상	2.55 (.89)	2.53 (.72)	2.25 (.91)	2.49 (.63)	2.72 (.81)	9.26***
<i>F₁</i>	13.06***	<i>n.s.</i>	<i>n.s.</i>	61.84***	25.55***	

주. 각 항의 수치는 요인의 평균점수이며, 점수범위는 0-4점임. (f1부터 f5까지의 명칭은 이전의 표에서와 같음)

F1은 각 요인별 4연령대의 차이를 비교한 ANOVA 결과이며, 사후분석 결과, **f1**은 30대와 50대, 30대와 60대, 40대와 60대 이상 사이에 차이가 유의미했고, **f4**는 30대와 40대, 30대와 50대, 30대와 60대 이상, 40대와 50대, 40대와 60대 이상, 50대와 60대 이상 사이의 차이가 유의미했고, **f5**는 30대와 40대, 30대와 50대, 30대와 60대, 40대와 60대, 50대와 60대 사이에 차이가 유의미했음.

F2는 각 연령대별 다서 요인의 차이를 비교한 ANOVA 결과이며, 사후분석 결과, **30대**의 경우 f1은 f2, f3, 및 f4와 차이가 유의미했고, f2는 f3, f4, 및 f5와 차이가 유의미했고, f3은 f4 및 f5와 차이가 유의미했고, **40대**의 경우 f1은 f2, f4, 및 f5와 차이가 유의미했고, f2는 f4, f3은 f4, f4는 f5와의 차이가 유의미했고, **50대**의 경우 f1은 f4, f2는 f4, f3은 f4, f4는 f5와의 차이가 유의미했고, **60대** 이상의 경우 f1은 f3, f2는 f3, f3은 f4 및 f5, f4는 f5와의 차이가 유의미했음.

*** $p < .001$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별 특성

f1(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이 용서과정에 미치는 중요도는 연령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3.06$, $p<.001$). 조사대상자의 연령대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f1(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이 인지적 변화 유발에 미치는 중요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으며, 그 차이가 근접한 연령대에서는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30대는 50대나 60대 이상과 그리고 40대도 60대 이상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2(대조로 인한 위로) 및 *f3(가해자의 변화)*. 이 요인들이 각각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에 미치는 중요도는 연령대에 따라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f2(대조로 인한 위로)*이나 *f3(가해자의 변화)*의 중요도를 같게 평가했다.

f4(건강악화 및 죽음). 이 요인이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에 미치는 중요도는 연령대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F=61.86$, $p<.001$). 조사대상자의 연령대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f4(가해자의 변화)*가 인지적 변화 유발에 미치는 중요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점 더 높아지며, 네 연령대에서 모두 차이를 보였다.

f5(치유를 위한 노력). 이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에 미치는 중요도는 연령대에 따라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F=25.55$, $p<.001$). 조사대상자의 연령대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f5(치유를 위한 노력)*가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에 미치는 중요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그 차이가 40대 및 50대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른 연령대의 비교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른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의 중요성 차이

30대. 먼저 30대에서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에 미치는 중요도는 요인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F=41.79$, $p<.001$). 사후분석 결과, 30대에는 *f2(대조로 인한 위로)*가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의 중요도

에 가장 중요했으며, 이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 뒤를 이어서 f3(가해자의 변화), f5(치유를 위한 노력)순으로 중요했지만, 그 두 요인 사이의 차이는 없었다. f1(사회경제적 지위상승)은 그 다음으로 중요했다. 마지막으로 f4(건강악화 및 죽음)의 중요도는 가장 낮았으며, 이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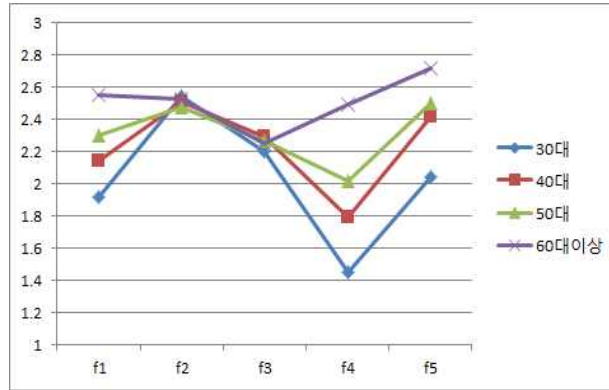
40대. 40대에서도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에 미치는 중요도는 요인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F=19.00, p<.001$). 사후분석 결과, 40대에는 f2(대조로 인한 위로), f5(치유를 위한 노력), f3(가해자의 변화) 순서로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에 중요했지만, 그 세 요인들 사이에서는 차이는 없었다. 그 다음으로 f1(사회경제적 지위상승)이 중요했다. 마지막으로 f4(건강악화 및 죽음)는 30대와 마찬가지로 중요도가 가장 낮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그렇지만 30대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의미 있게 상승하였다.

50대. 50대에서도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에 미치는 중요도는 요인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F=10.59, p<.001$). 사후분석 결과, 50대에는 f5(치유를 위한 노력), f2(대조로 인한 위로), f1(사회경제적 지위상승), f3(가해자의 변화) 순서로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에 중요했지만, 그 네 요인들 사이의 차이는 없었다. f4(건강악화 및 죽음)는 40대와 마찬가지로 중요도가 가장 낮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그렇지만 40대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의미 있게 상승하였다.

60대. 60대 이상에서도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에 미치는 중요도가 요인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F=9.26, p<.001$). 사후분석 결과, 60대에는 f5(치유를 위한 노력), f1(사회경제적 지위상승), f2(대조로 인한 위로), f4(건강악화 및 죽음) 순서로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에 중요했지만, 그 네 요인들 사이의 차이는 없었다. f3(건강악화 및 죽음)은 중요도가 가장 낮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60대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f1(사회경제적 지위상승)과 f4(건강악화 및 죽음)의 중요도가 상승하였다.

<그림 1>을 살펴보면 f2(대조로 인한 위로) 및 f3(가해자의 변화)은 모든 연령대에서 같은 중요도를 보이지만, f1(사회경제적 지위상승),

<그림 1> 연령대별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의 중요도 비교



주. f1: 사회경제적 지위상승, f2: 대조로 인한 위로
f3: 가해자의 변화, f4: 건강악화 및 죽음
f5: 치유를 위한 노력

f4(건강악화 및 죽음) 그리고 f5(치유를 위한 노력)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중요도가 높아진다. 이 결과를 통해 30대와 40대는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에 f2(대조로 인한 위로) 및 f3(가해자의 변화)가 모두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50대 이상에서는 f1(사회경제적 지위상승), f4(건강악화 및 죽음), 및 f5(치유를 위한 노력)도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됨을 알 수 있다.

논의

용서의 요인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용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피해자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 가해자의 특성과 관련된 가해자 요인, 가해자와의 관계와 관련된 대인관계 요인 및 노년기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등으로 조사되었다(위경선 · 윤가현, 2011c, 2012; Darby & Schlenker, 1982; Enright 등, 1992; Girard &

Mullet, 1997; Girard 등, 2002; McCullough 등, 1997; Takaku 등, 2001; Tung, 2009; Wade & Worthington, 2003). 이러한 용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특정한 연령층의 개인이나 집단의 용서 프로그램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령에 따라서 다른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그동안 종교나 친화성, 상처의 빈도와 심각성 등의 요인들만 연령에 따른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연령에 따른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었다(Mullet 등, 2003; Steiner 등, 2011,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용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요인들의 연령에 따른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을 척도로 변화시킨 후 30대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 척도의 5요인 모형이 적합한지를 확인했으며,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들의 연령에 따른 중요도 비교 및 각 연령대의 용서에 중요한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들에 의거하여 다음 네 가지의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시도되었던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 척도의 17개 문항에 대해 3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852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5요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의 용서 요인 연구에서 용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개인적 요인을 포함하는 f5(치유를 위한 노력), 가해자 요인을 포함하는 f3(가해자의 변화), 관계적 요인을 포함하는 f2(대조로 인한 위로)에 더해서 노년기의 특성을 포함하는 f1(사회경제적 지위상승)과 f4(건강악화 및 죽음), 즉 5개의 요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를 유발시키는 유발 요인의 측정에 적합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요인들은 용서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인지적 변화를 일으키는 경험들, 즉 용서의 이유가 되는 요인들이다.

용서에 관련된 기존의 척도들로는 상태용서 척도, 특성용서 척도, 용서과정 척도, 가족용서 척도, 용서신념 척도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김지영·권석만, 2009; 박종효, 2006; 오영희, 2011, 2012; 이윤희·서수균, 2012; 조수아·권석만·임영진, 2011; Enright & Fitzgibbons, 2000; Subkoviak 등, 1995). 그러나 본 연구에서 타당성을 확인한 척

도는 기존의 용서 척도들에서는 측정할 수 없는 용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개인이나 집단의 용서 과정의 인지적 변화 요인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 경험자와 용서 비경험자를 비교할 수 있어서 용서의 이유와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연령에 따른 중요도 비교에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타났는데, 각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들이 용서과정에 미치는 중요도는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f_2 (대조로 인한 위로)나 f_3 (가해자의 변화)이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에 미치는 중요도는 연령대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노년기 특성과 관련된 요인인 f_1 (사회경제적 지위상승 요인)이나 f_3 (건강악화 및 죽음 요인) 그리고 f_5 (치유를 위한 노력 요인)가 용서과정에 미치는 중요도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더 높아져 본 연구의 가설들은 모두 지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강악화가 고령자의 용서에 중요하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Carstensen(1992)에 의하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여생이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재평가하는데, 건강이 나빠질수록 용서의 욕구가 커진다고 한다. 즉 임종을 앞둔 환자는 죽기 전에 용서를 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며, 또 노인들은 자신의 건강이 좋을 때보다 심각한 질병으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상황으로 바뀔 때 그리고 가해자가 건강을 유지할 때보다도 심각한 질환으로 오래 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해자를 더 쉽게 용서했다(Lawler-Row & Piferi, 2006).

f_1 (사회경제적 상승 요인)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상승과 자신과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상승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고령자일수록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또 이는 서구와 우리나라 노인들을 상대로 성공적인 노화에 필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비교한 연구들의 결과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서구의 노인들의 경우 성숙한 노화를 위해 중요한 변인으로 자율성이나 생산성, 적극성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이 드러났던 반면,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경우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및 자녀의 성공이 드러났다(윤현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의 중요도

숙·유희정, 2006; 정영숙·조설애·안정신·정여진, 2012; 한수정·한진숙·문영숙, 2009). 자녀는 성년이 된 이후에도 노부모의 자긍심 유지 및 향상의 중요한 원천이 되는데,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자녀와의 관계 및 자녀의 성공은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미혜·신경림, 2005; 유양경 등, 2004).

이러한 맥락에서 노년기에 도달하여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하면 자긍심이 향상되어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커지고, 타인과 원만하지 못했던 관계를 해소시키는 등 화해나 용서를 쉽게 시도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 자녀의 성공은 노인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는 승화의 계기, 즉 상처 치유의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젊은 시절에는 그들의 자녀가 취업이나 부모로부터의 독립, 사회경제적 지위의 안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년기처럼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이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를 유발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아직 부각하지는 않는 것이다.

f5(치유를 위한 노력 요인)는 상처받은 개인이 종교나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자신의 정신적 평안이나 복을 받기 위해 가해자를 용서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 요인이다. 이 요인이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에 미치는 중요도가 연령 증가와 함께 높아진다는 결과는 종교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진다는 이전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Mullet 등, 2003). 이 결과는 역시 사람들이 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자신의 여생이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재평가하고 용서의 욕구가 커진다는 이론과 일치한다(Carstensen, 1992). 가해자에 대한 억울함과 원통함이 피해자의 마음속에서 강한 분노와 복수심을 일으키며, 복수심이 남아 있는 한 상처를 회상하는 기회가 생기게 되며, 상처의 회상이 끊임없는 정서적 괴로움을 안겨주거나 주관적 안녕에 큰 타격을 주므로 정신적 안녕을 회복하기 위해 용서를 선택한다(Emmons, 1992; McCullough 등, 1998; Metts & Cupach, 1998; Wegner, 1997).

f2(대조로 인한 위로 요인)는 가해자가 아닌 타인하고의 상호작용이나 타인의 관찰을 통해 위로받고, 가해자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덜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용서를 할 때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해자에 대한 공감이나 상처의 심각성과 관련된 용서 연구들과 일맥상통하였다(김기범 · 임효진, 2006; McCullough 등, 1997; McCullough 등, 1998; McCullough & Worthington, 1995). 예를 들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비슷한 사람들을 관찰할 때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자신과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관찰할 때 “세상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과거에 가해자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경우보다 더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가해자의 행동을 더 크고 넓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공감이 증가되어 용서의 경향성이 높아졌다(김기범 · 임효진, 2006; 손운산, 2008; McCullough 등, 1997).

여러 연구들에서 가해자의 사과는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드러났는데(Darby & Schlenker, 1982; Girard & Mullet, 1997; McCullough 등, 1997; Ohbuchi, Kameda, & Agarie, 1989; Takaku 등, 2001), 본 연구에서도 가해자의 사과를 포함하는 f3(가해자 변화 요인)은 모든 연령의 용서에서 차이가 없이 중요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렇지만 가해자의 사과 효과는 피해자가 그 사과를 어떻게 지각했는가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McCullough 등, 1997; McCullough 등, 1998).

셋째, 각 연령대별로 용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중요한 요인들을 확인한 결과, 30대에서는 f2(대조로 인한 위로)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f3(가해자의 변화), f5(치유를 위한 노력)가 용서과정에 중요했으며, 40대에서는 f2(대조로 인한 위로), f5(치유를 위한 노력), f3(가해자의 변화)이, 50대에서 f5(치유를 위한 노력), f2(대조로 인한 위로), f1(사회경제적 지위상승), f3(가해자의 변화)이, 60대 이상에서는 f5(치유를 위한 노력), f1(사회경제적 지위상승), f2(대조로 인한 위로), f4(건강악화 및 죽음)가 용서과정에 중요했다. 또 30대와 40대, 50대에서 f4(건강악화 및 죽음)는 중요도가 가장 낮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그렇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용서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의 중요도

과정에 미치는 중요도가 의미 있게 상승했다.

이 결과는 타인사고의 상호작용이나 타인의 관찰을 통한 가해자의 인식 변화 및 위로를 포함하는 f2(대조로 인한 위로)가 모든 연령대의 용서에 중요하고, 50대 이상부터는 f1(사회경제적 지위상승)이, 60대 이상부터는 f4(건강악화 및 죽음)가 다른 요인들과 함께 용서에 중요함을 나타낸다.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련된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가해자와의 친밀도, 가해자와의 관계의 질 및 지속기간 등 가해자와의 관련성 등이 대인관계 요인으로 분류되었지만(McCullough 등, 1998; Nelson, 1993; Rackley, 1993; Roloff & Janiszewski, 1989),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타인사고의 상호작용이나 타인의 관찰이 모든 연령의 용서과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는 용서 연구에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타인도 용서를 촉진시키는 데에 관여할 수 있는 대상임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넷째, 그동안 용서과정 모형에 근거한 기존의 용서 프로그램들은 용서주체자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용되어 왔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고려한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에 관련된 연령에 따른 특성은 특정 연령대의 개인이나 집단의 용서 상담이나 프로그램에 활용되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노년세대를 위하여 응용하는 용서 프로그램에는 건강악화 및 죽음의 관찰을 통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나 자녀의 성공 등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탐색하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용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노년기의 용서와 관련된 특성들을 논했지만, 상기의 연구결과들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그 중 대표적인 사항은 조사 대상자의 용서 경험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서 용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변화 유발 변인들의 중요성을 탐색했다는 점이다. 이에 추후의 연구에서는 용서를 경험한 사람과 용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갖는 중요도를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논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정교한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으리라고 사

료된다.

참고문헌

- 구세준 · 배성만 · 현명호 (2011). 스트레스, 대처 전략 및 용서가 화병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 691-707.
- 김광수 (2002). 용서프로그램이 대인관계 상처경험자의 자존감, 불안, 분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0, 165-191.
- 김광수 (2004). 경험과학적 용서연구의 반성적 고찰과 제언. *교육심리연구*, 18, 33-49.
- 김기범 · 임호진 (2006). 대인관계 용서의 심리적 과정 탐색: 공감과 사과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 19-33.
- 김미혜 · 신경림 (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 35-52.
- 김지영 · 권석만 (2009). 용서특질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 239-261.
- 박종효 (2003).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 301-322.
- 박종효 (2006). 용서심리이론과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개관연구. *인간발달연구*, 13, 117-134.
- 박종효 (2012). 한국 성인의 용서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 탐색: 대인관계 신뢰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 415-432.
- 손운산 (2008). *용서와 치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오영희 (1995). 용서를 통한 한의 치유: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7, 70-94.
- 오영희 (2004). 대학생의 부모-자녀 갈등경험, 용서, 정신건강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 59-77.
- 오영희 (2007). 청소년의 부모-자녀 갈등경험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 용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1, 645-663.

용서과정의 인지적 변화 유발 요인의 중요도

- 오영희 (2011).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 799-813.
- 오영희 (2012). 한국인 용서 척도-단축형의 타당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 399-413.
- 위경선·윤가현 (2011, May). 신뢰감 파괴로 인한 상처경험에 대한 노년세대의 인지적 변화. *한국노년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 373). (a)
- 위경선·윤가현 (2011, August). 노년기 과거상처경험의 용서과정 모델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p. 261. (b)
- 위경선·윤가현 (2011). 과거 상처 경험에 대한 노년기 용서과정. *한국노년학연구*, 20, 63-83. (c)
- 위경선·윤가현 (2012). 노인들의 용서 경험 시기에 따른 인지적 변화 요인의 특성. *한국노년학연구*, 21, 77-92.
- 유양경·고성희·김귀분·정승희 (2004).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16, 102-110.
- 윤현숙·유희정 (2006).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 5-31.
- 이윤희·서수균 (2012). 한국판 가족용서 척도 개발 및 가족용서와 청소년의 또래관계 사이에서 또래신뢰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 69-95.
- 장우심 (2010). 용서 프로그램이 여성노인의 분노, 불안,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 109-126.
- 정영숙·조설애·안정신·정여진 (2012). 한국 노인의 삶의 의미 원천으로서 가족관계와 자기초월가치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 19-41.
- 조수아·권석만·임영진 (2011). 용서신념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 1-19.
- 한수정·한진숙·문영숙 (2009).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21, 423-434.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Al-Mabuk, R., Enright, R., & Cardis, P. (1995). Forgiveness education with parentally love-deprived late adolescents. *Journal of Moral Education, 24*, 427-444.
- Baskin, T., & Enright, R. (2004). Intervention studies on forgiveness: A meta-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2*, 79-90.
- Bono, G., McCullough, M., & Root, L. (2008). Forgiveness, feeling connected to others, and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 182-195.
- Bringle, M. (1996). "I just can't stop thinking about it": Depression, rumination, and forgiveness. *World and Word, 16*, 340-346.
- Carstensen, L. (1992). Social and emotional patterns in adulthood: Support for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Psychology and Aging, 7*, 331-338.
- Cotroneo, M. (1982). The role of forgiveness in family therapy. In A. J. Gurman (Ed.), *Questions and answers in the practice of family therapy* (pp. 241-244). New York: Brunner/Mazel.
- Darby, B., & Schlenker, B. (1982). Children's reactions to apolo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742-753.
- Emmons, R. (1992). Abstract versus concrete goals: Personal striving level, physical ill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292-300.
- Enright, R. (2001). *Forgiveness is a choice: A step-by-step process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nright, R. (2012). *The Forgiving life: A pathway to overcoming resentment and creating a legacy of lov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nright, R., & Fitzgibbons, R. (2000). *Helping clients forgive: An empirical guide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nright, R., Gassin, E., & Wu, C. (1992). Forgiveness: A developmental view. *Journal of Moral Education*, 21, 99-114.
- Enright, R., &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1). The moral development of forgiveness. In W. Kurtines & J. Gewirtz (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pp. 123-152).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 Enright, R., &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6). Counseling within the forgiveness triad: On forgiving, receiving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Counseling and Values*, 40, 107-126.
- Enright, R., & Zell, R. (1989). Problems encountered when we forgive one another.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8, 52-60.
- Erikson, E.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Erikson, E. (1978). *Adulthood*. New York: Norton.
- Fincham, F., Paleari, G., & Regalia, C. (2002). Forgiveness in marriage: The role of relationship quality, attributions, and empathy. *Personal Relationships*, 9, 27-37.
- Flanigan, B. (1992). *Forgiving the unforgiveable: Overcoming the bitter legacy of intimate wounds*. New York: Macmillan.
- Freedman, S., & Enright, R. (1996). Forgiveness as an intervention goal with incest survivo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983-992.
- Gauche, M., & Mullet, E. (2005). Do we forgive physical aggression in the same way that we forgive psychological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31, 559-570.
- Girard, M., & Mullet, E. (1997). Propensity to forgive in adolescents, young adults, older adults, and elderly people.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4, 209-220.

- Girard, M., Mullet, E., & Callahan, S. (2002). Mathematics of Forgiveness.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15, 351-375.
- Gorsuch, R., & Hao, J. (1993). Forgiveness: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its relationships to religious variables.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4, 333-347.
- Hargrave, T. (1994). *Families and forgiveness: Healing wounds in the intergenerational family*. New York: Brunner/Mazel.
- Hebl, J., & Enright, R. (1993). Forgiveness as a psychotherapeutic goal with elderly females. *Psychotherapy*, 30, 658-667.
- Hope, D. (1987). The healing paradox of forgiveness. *Psychotherapy*, 24, 240-244.
- Lawler-Row, K., & Piferi, R. (2006). The forgiving personality: Describing a life well live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 1009-1020.
- McCullough, M. (2000). Forgiveness as human strength: Theory, measurement, and links to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43-55.
- McCullough, M., Sandage, S., Rachal, K., Worthington, E., Brown, S., & Hight, T. (1998).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II. Theoretical elabor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586-1603.
- McCullough, M., & Worthington, E. (1995). Promoting forgiveness: Psychoeducational group interventions with a wait-list control. *Counseling and Values*, 4, 55-68.
- McCullough, M., & Worthington, E. (1999). Religion and the forgiving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67, 1141-1164.
- McCullough, M., Worthington, E., & Rachal, K. (1997).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321-322.
- Mullet, E., Barros, J., Veronica-Usai, L., Neto, F., & Shafighi, S. (2003). Religious involvement and the forgiving personality.

- Journal of Personality*, 71, 1-19.
- Mullet, E., Houdbine, A., Laumonier, S., & Girard, M. (1998). "Forgivingness": Factor structure in a sample of young, middle-aged, and elderly adults. *European Psychologist*, 3, 289-297.
- Metts, S., & Cupach, W. (1998, June). *Predictors of forgiveness following a relational transgression*. Paper presented at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sonal Relationships, Saratoga Springs, New York.
- Nelson, M. (1993). *A new theory of forgive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West Lafayette, Indiana.
- Ohbuchi, K., Kameda, M., & Agarie, N. (1989). Apology as aggression control: Its role in mediating appraisal of and response to har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19-227.
- Prince-Paul, M., & Exline, J. (2010). 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messages at the end of life.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45, 449-463.
- Rackley, J. (1993). *The relationships of marital satisfaction, forgiveness, and religio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Blacksburg, Virginia.
- Ritzman, T. (1987). Forgiveness: Its role in therap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Medical Hypnoanalysis*, 2, 4-13.
- Roloff, M., & Janiszewski, C. (1989). Overcoming obstacles to interpersonal compliance: A principle of message construc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6, 33-61.
- Smedes, L. (1984). *Forgive and forget: Healing the hurts we don't deserve*. San Francisco California: Harper and Row.
- Steiner, M., Allemand, M., & McCullough, M. (2011). Age differences in forgivingness: The role of transgression

- frequency and intens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5, 670-678.
- Steiner, M., Allemand, M., & McCullough, M. (2012). Do agreeableness and neuroticism explain age differences in the tendency to forgive oth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 441-453.
- Subkoviak, M., Enright, R., Wu, C., Gassin, E., Freedman, S., & Olson, L. (1995). Measuring interpersonal forgiveness in late adolescence and middle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ce*, 18, 641-645.
- Takaku, S., Weiner, B., & Ohbuchi, K. (2001). A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apology and perspective taking on forgiveness.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20, 145-167.
- Thompson, L., & Snyder, C. (2003). Measuring forgiveness. In S. Lopez & C. Snyder (Eds.),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 (pp. 301-31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oussaint, L., & Webb, J. (2005).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nections between forgiveness, mental health, and well-being. In E. Worthington (Ed.), *Handbook of forgiveness* (pp. 349-362). New York: Routledge.
- Tung, L. (2009). *Choosing to forgive: An experiment study of factors that affect forgiv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Vaillant, G. (2002). *Aging well*. Boston: Little, Brown and Co.
- Wade, N., & Worthington, E. (2003). Overcoming unforgiveness: Is forgiveness the only way to deal with unforg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1, 343-353.
- Walker, D., & Gorsuch, R. (2004). Dimensions underlying sixteen models of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Journal of*

- Psychology and Therapy*, 32, 12-25.
- Wee, K., & Youn, G. (2012, October). *Characteristics of the cognitive change factors according to the time when older people had forgiven the past hurts*. Paper presented at the 6th International Symposium for Aging, Gwangju, Korea.
- Wegner, D. (1997). When the antidote is the poison: Ironie mental control processes. *Psychological Science*, 8, 148-150.
- Woodman, T. (1991). *The role of forgiveness in marital adjus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uller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Pasadena, California.
- Worthington, E. (1998). An empathy-humility-commitment model of forgiveness applied within family dyads.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59-76.
- Worthington, E. (2005). *The power of forgiveness*. Philadelphia, PA: Templeton Foundation Press.
- Worthington, E. (2006).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Theory and application*. New York: Brunner/Routledge.
- Worthington, E., & Wade, N. (1999). The psychology of unforgiveness and forgiveness and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Social & Clinical Psychology* 18, 385-418.
- Zhang, L., & Postiglione, G. (2001). Thinking styles, self-esteem, and socio-economic statu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 1333-1346.

**Comparing the Importance of the Cognitive Change Factors
for the Forgiving Process as a Function of Age**

Kyeong-Sun Wee · Gahyun Yo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500-757

Based on the earlier studies, the cognitive change variables that facilitate forgiveness could be divided into 5 factors: f1(ascent in social status), f2(solace by social comparison), f3(change in offender), f4(death or deterioration in health), and f5(striving for healing) in this study.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5-factor structure in forgiving process, and the secondary aim was to compare the relative levels in importance among the 5 cognitive change factors as a function of age. Participants were 419 men and 433 women who aged from 30 to 84 years. They were asked to assess how much each cognitive change factor affected their decisive acts of forgiving on 5-point scale [0 (not at all) to 4 (very much)] if they had to forgive someon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ed a reasonable fit index for the 5-factor structure of the forgiveness-related questionnaire. Among the five factors, both f2 and f3 were found to be important, irrespective of the participants' age, in their decisive acts of forgiving. The older the participants were, the more important the f1, f4 and f5 were come out in their decisive acts.

(논문접수일: 2013년 9월 30일)

(수정논문접수일: 2013년 11월 12일)

(논문게재승인일: 2013년 11월 22일)